

광주 동부서 이전 호텔 건립 재추진

市·추진단 문화특구 조성 예산확보·민자유치 나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조성 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동부경찰서 이전 및 민자 유치를 통한 호텔 건립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실무자회의로 구성된 투자 실무 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내 문화산업체 유치에 위한 마케팅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시비와 국비 10억원씩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기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2008년 시비 지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비 30억원이 불용처리돼 무산된 바 있는 ‘동부경찰서 부지 및 주변 부지 내 호

텔 건립사업’이 1차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사업은 애초 광주시와 추진단이 전당 주변에 고급숙박시설인 호텔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해당 부지의 땅 값이 비싸다는 점을 감안해 일부 부지를 매입한 뒤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려 했었다. 그러나 광주시가 국책사업에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데다, 확보해 둔 국비가 반환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추진단 관계자는 “이 사업은 문화중심도시조성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국비가 불용처리됐다고 하더라도 신규사업으로 요청하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의 타당성은 이미 검증받은 만큼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의견을 같이 한다면 예산 확보도 어렵지 않을 것

로 본다”고 말했다.

투자 실무협의회는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내 들어설 수 있는 문화산업체와 함께 일부 부지 매입을 통해 호텔, 유스호스텔 등 민간자본 투자자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강운태 광주시장은 또 투자진흥지구 대응 투자 지시와 함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투자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 명의를 홍보 서한을 발송할 것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지역, CGI센터권역인 송암산단, 사직공원 일대를 1단계 시범 문화산업 투자예정지구로 지정했으며, 지구 내 30억원 이상 투자하는 문화산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 등 업종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해주도록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대통령, 통일세 신설 제안

“통일 반드시 온다” 광복절 경축사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 신설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는 한편 국회는 개헌과 선거제 및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선진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2·5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순으로 이행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인류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려면 우리는 시장경제에 필요한

윤리의 힘을 더욱더 키우고 규범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과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선진화 과제를 거론하며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의 정치도 ‘권력의 정치’에서 ‘삶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개최되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서울회의를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반영할 수 있는 협력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는 ‘공정한 지구촌’을 향한 대한민국의 제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식민 지배 사과’ 담화와 관련, “일본의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며 “최근 일본 정부는 총리 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민을 향해, 한국민의 뜻에 반한 식민 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광복절 광화문 헌관 제막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및 광화문 헌관 제막식이 끝난 뒤 시민들이 복원된 광화문을 통해 경복궁을 관람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한·러, 나로호 3차 발사 합의

실패원인 규명 추가실험도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의 3차 발사가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주진)은 지난 9~12일 대전에서 나로호 2차 발사 결과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해 제3차 한·러 공동조사위원회(FRB)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0일의 나로호 2차 발사가 실패했다는 것을 공식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3차 발사시는 2차 발사실패의 원인규명과 함께 개선조치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러시아 전문가들은 발사실패 원인과 관련, 지난 2차 FRB에서 러시아 측이 제시한 가설과 우리 측이 추가 제시한 가설에 대한 상세분석 내용을 논의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정확한 실패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 시험과 분석이 필요하고 이런 시험은 상대방 일회 하에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제4차 FRB 개최 시기는 추가 시험과 분석이 끝난 후 양측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교과부 유극의 우주개발과장은 “FRB에서 논의되는 구체적인 기술 사항은 결론 도출까지는 공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구·비즈·폐품 등 수많은 재료들의 어울림



▶양혜규
‘일곱개의 조명조각’



지난해 열린 제53회비엔날레날레 한국관 작가로 선정된 양혜규씨의 설치 작품, 이동식 에어컨·히터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과 열기, 방향제 냄새, 다양한 조명이

어우러져 공간각각적인 이미지를 전달해준다.

또 크리스마스 조명, 조개껍데기, 쇠조각, 전구, 다양한 폐기물 등 수많은 도구나 오브제들이 서로 미

학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작품의 전체적인 형상은 사람의 모습과 닮아 있고, 형형색색의 비즈와 조명이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광여고가 光州教育을 世界로! 未來로!

■ 한국 최우수 영어교육 리더학교, ■ 서울대 최근 10년간 통 '61명' 합격! ■ 하버드대 Ph.D 등 외국 유학생 213명 배출
■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7월 15일(목) 발표 '시교육 없는 학교' 수완별 이동수월 학제 선택 교과과정 우수학생 집중 프로그램 운영 성과우수교

서남대학교

비즈니스·보건·법학·경영학부 특성화대학

법학부 '사회사법' 1등 - 4명 중석

전국대학 국가법시사회 '최우수' 수상

한려대학교

광안캠퍼스 국제자유무역 교육지구 건물·보통대학

법학부 '법학' 1등 - 4명 중석

전국대학 국가법시사회 '최우수' 수상

대광여고

2010년 7월 15일(목) 발표

시교육 없는 학교

수완별 이동수월 학제

선택 교과과정

우수학생 집중 프로그램 운영

성과우수교

서남대학교

비즈니스·보건·법학·경영학부 특성화대학

법학부 '사회사법' 1등 - 4명 중석

전국대학 국가법시사회 '최우수' 수상

한려대학교

광안캠퍼스 국제자유무역 교육지구 건물·보통대학

법학부 '법학' 1등 - 4명 중석

전국대학 국가법시사회 '최우수' 수상

대광여고

2010년 7월 15일(목) 발표

시교육 없는 학교

수완별 이동수월 학제

선택 교과과정

우수학생 집중 프로그램 운영

성과우수교